

: 추석맞이 세시풍속 한마당

(이동희)에서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전주시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‘ 한마당’을 마련했다. 이번 추석맞이 세시풍속 한마당은 추석 명절 기간인 9월 6일(토)부터 대체휴무일인 10일(수)까지 5일간 전주역사박물관 하늘마당, 로비, 녹두관 등에서 진행되며, ‘전통놀이체험’, ‘특선영화상영’, ‘즉석사진촬영’, ‘송편나누기’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.

특히 ‘전통놀이체험’은 ‘다문화 전통놀이체험’으로 꾸며지며, 이번 추석에는 중국의 콩쥬놀이를 즐길 수 있다.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줄을 속이 빈 장구모양으로 생긴 콩쥬의 가운데 몸통 부분에 여러번 돌려 감아, 어깨를 들쭉이며 공중에서 돌리는 놀이이다. 다양한 동작을 연출할 수 있어 중국 서커스의 한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, 몸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온 가족이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다. 더불어 중국의 놀이를 통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가정의 문화를 익히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.

추석당일(8일)에는 추석 대표음식인 ‘송편나누기’를 진행한다. 일년 중 가장 풍성한 시기인 추석에 한해의 수확을 축하하며 만들어먹었던 송편을 가족과 나누어 먹으며 추석의 참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. 송편은 선착순 100가족에게 나눌 예정이다.

역사박물관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‘우리가족 기념촬영’ 역시 진행된다. 추석 연휴동안 한복을 입고 박물관을 방문한 가족에게 즉석사진을 찍어줘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것이다. 매일 100가족씩 선착순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.

‘세시풍속 퍼즐풀기’와 ‘만들기체험’도 진행되며, 매일 오후 2시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‘추석특선영화’로 ‘몬스터주식회사’, ‘에픽’, ‘캣츠 앤 독스2’, ‘도니도니 삼형제와 아기돼지 칠팔작전’, ‘홍길동 2084’가 상영된다.

이밖에도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주역사실과 <전주 마을이야기 특별전Ⅱ> “완산칠봉과 완산동 사람들” 등 다양한 전시가 준비되어 있으며, 이번 추석연휴기간 전주역사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다문화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.